

- (혁신창업)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, 일·문화·소통·주거가 결합된 복합 창업공간으로 '지역창업허브' 구축(1곳)
- (캐주얼창업*) 창업관련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'(가칭) K-창업캠퍼스**'를 시범 구축하고, 그간 분산 개최되던 여러 창업경진대회를 통합

* 비용과 부담이 낮아 쉽게 도전할 수 있는, 창의적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

** BI, 중장년센터, 1인창조센터,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 외 AC-VC 등 민간도 집적

- (지역 벤처투자 확대) 지역 벤처펀드 확대 및 엔젤투자허브 추가를 통해 지방소재 벤처·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마련

- 지역 벤처펀드를 1천억원 이상 추가 조성하고 2개 권역을 추가* 선정하는 한편, 지역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'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' 조성

* (기존) 5개 권역(부산/충청/울산·경남/대구·제주·광주/전북·강원)에 4,800억원 조성('23.11)
→ (개선) 5개 권역 중 2개 권역을 추가 선정하고, '24년 1,000억원 이상 추가 조성

- 수도권-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'지역 엔젤투자허브' 운영 (24, 4개)

* (역할)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

□ 중·장기 벤처 정책방향 수립 및 벤처제도 고도화

- (정책 로드맵) 정부·업계·전문가가 합동으로 벤처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심층 분석*하여, 최적화된 지원 로드맵을 수립·발표('24.7)

* '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의 벤처이력기업 12.8만개의 재무정보, 성장주기 등 분석

- (복수의결권 활성화)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*하고, 업계로부터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*를 적극 청취하여 개선안에 반영

* 사례 공유, 정례 실무설명회, 컨설팅 등 제도 활용 독려

** (예시)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, 발행에 필요한 창업주 의결권 요건 완화 등

- (보상제도 활용 지원)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대한 인센티브 수단*에 대해 정기 설명회, 자문 활동 제공 등 제도 활성화 지원

* (스톡옵션) 기업주식을 약정된 가격(행사가격)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
(성과조건부 주식) 기업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성과 미달성 시 환수('23.12 도입)